

‘친환경 농법’ 왕우렁이, 애물단지 전략

개체수 늘어 어린 모 잡아먹는 사례 속출...전남도, 5034ha 피해 왕우렁이 공급에 40억원 들이고 수거·퇴치에 5억원 쓰고 ‘옛박자’ 윤명희 도의원 “부작용 극복할수 있는 농업기술 연구 등 대책” 촉구

친환경 농법의 대표 생물로 꼽혀온 왕우렁이가 어린 모를 잡아먹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급기야 피해를 막기 위해 왕우렁이가 수거 기간까지 정해 농경지와 용·배수로 주변 우렁이 알 찾기에 나서는 가 하면,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약을 추가로 투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 이상 변화가 친환경 농업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윤명희(민중·장흥 2) 도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 38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재검토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래 우렁이 농법은 농약을 대신해온 대표적인 친환경 제조방식으로 알려져있다. 눈에 모를 심고 난 뒤 눈에 우렁이를 투입하면 잡초를 제거할 수 있어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 감소 등에 도움이 됐다는 게 지역 농민들 설명이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생태 양상이 바뀌면서 겨울에 폐사해야 할 왕우렁이가 죽지 않고 성장한데

다, 개체 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불철 모내기한 어린 모를 잡아먹는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퇴치 살충제를 구하려고 농약사를 찾는 농민들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친환경을 위해 도입한 우렁이가 또 다른 농약사 용을 불러오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가 집계한 피해 농가 규모도 9개 군(5034ha)에서 광범위하다.

구체적으로는 강진(1200ha) 피해가 가장 크고 고흥(990ha), 해남(905ha), 장흥(600ha), 완도(368ha), 신안(359ha), 영암(247ha), 무안(188ha), 진도(177ha) 등에서 피해 신고가 이뤄진 상태다.

피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고 있는 농가도 많아 피해 농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전남도는 급기야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 왕우렁이 피해 예방을 위한 약품비로 시·군과 함께 5억



수거된 왕우렁이.

2000만원을 지원했고 7월 한 달을 ‘왕우렁이 일제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우렁이 찾기에 나섰다.

전남 22개 시·군이 왕우렁이 농법에 지원비로 4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농민 뿐 아니라 전남도, 시·군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윤명희 의원은 “겨울에 살아남아 봄에 벼를 잡아먹는 왕우렁이로 인한 농사 피해가 늘면서 벼농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알려지고 있다”며 “친환경 농법을 위해 우렁이를 도입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우렁이 예방을 위해 다른 농약을 사용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농업기술 연구와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 인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먹는 채소가 10가지도 안된다구요?

영국 식문화 다양성 부족...한식의 위대함 새삼 느껴져

출장으로 영국에 다녀왔다. 예상과는 달리 날씨가 좋아 편했고, 런던의 고전적인 풍경은 눈을 즐겁게 했다. 단조로운 듯하면서 담백한 음식이 시골스러운 필자의 입맛에도 맞는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그런데 영국의 음식문화 두고 안내자가 한 말에 놀랐다. “이곳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채소도 수산물도 먹는 게 10가지가 넘지 않아요”라는 것이다. 섬나라긴 하지만 문명이 발달한 나라치고는 음식 문화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다.

영국 전통 음식이 이렇게 단조롭고 맛있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해안 국가로서 온난한 해류인 북대서양 해류의 영향을 받는데 토양이 비옥하지 않아 다양한 종류의 농작물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과일과 채소의 다양성과 품질에 제약이 있어 영국의 음식 문화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역사적으로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수송의 제한으로 신선한 식재료 수입이 어려웠던 점 역시 영국 음식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17세기 올리버 크롬웰이 이끈 청교도 혁명과 근본주의 기독교 사상 영향으로 음식문화 암흑기를 맞는데, 신앙과 근신을 중시하는 청교도의 원칙으로 맛을 즐기는 것을 향락이나 쾌락으로 보고 배격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됐고, 이에 따라 음식 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바쁜 도시 생활로 인해 전통 요리가 소멸하고 대신에 빠르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피시 앤 칩스’와 같은 간단한 요리가 국가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다. 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면서 세계 각국에 맛있는 요리를 마치 자국의 음식처럼 다

양하게 들여왔으며, 이로 인해 맛있고 저렴한 외국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다.

일상으로 먹는 식문화의 다양성으로 치면 중국을 제외하면 필자는 농산물을 비롯한 식재료의 다양성을 따지고 들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비빔밥과 불고기, 김치찌개, 떡볶이, 잡채 등 공식적으로 분류하는 한식만도 수십 가지며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만도 족히 1만 종이 넘을 것이다. 이는 한국과 외국을 오가는 항공편의 기내식 종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항공편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기내에서 제공되는 한식 메뉴는 사골국과 콩국수, 비빔밥, 죽오리, 북어국, 곤드레나물밥, 제육쌈밥, 김치볶음밥, 돼지불고기, 도토리묵밥, 명란 김치 콩나물국 등 15종에 달한다. 여기에 비건식까지 더하면 한식은 20여 종에 육박한다.

이처럼 세계인을 사로잡은 한식의 인기 저변에는 품질 좋은 농산물 등 수많은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술력이 있다. 식재료의 범위가 밭에서 재배하는 채소 외에 야생에서 자라는 초목의 잎·열매·씨앗·버섯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는 점은 특징이자 장점이다.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 바다에서 채취하는 풍부한 해조류도 한식의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들 음식 맛없다고 하는 나라에서 입맛에 맞았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식재료의 다양성을 보면 그 나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서다.

이번 여정에서 영국의 주식재료로 쓰이는 농산물을 살펴보면 농업의 변화와 함께 그 중요성도 더욱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식생활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건강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이를 고려하면서 식재료를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bigkim@kwangju.co.kr

“우리쌀 먹고 ‘밥심’ 충전하세요”...쌀 소비 촉진 캠페인

농협 전남본부, 브랜드 쌀 홍보

농협 광주·전남본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농협전남본부는 지난 27일 정남진 장흥 물축제장에서 ‘2024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부스를 마련하고 쌀 가공식품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등 방문객 대상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가 선정한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담양 ‘대숲맑은 담양쌀’ (대상) ▲순천 ‘나누우리’ (최우수상) ▲영암 ‘달마지쌀’, 해남 ‘땅끝햇살’, 영광 ‘세계절이 사는 집’ (우수상) ▲강진 ‘프리미엄호평’, 무안 ‘황토랑쌀’, 나주 ‘왕건이타면쌀’, 장흥 ‘아르미쌀’, 곡성 ‘백세미’ (장려상) 등이다.

농협전남본부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 추진을 위해 쌀 소비 촉진과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열린 심사분석회의를 통해 쌀 소비 촉진 캠페인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드 쌀의 수도권 판매 확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광주본부도 지난 26일 관내 지역농협 상임이사 및 전무 14명이 참석한 2분기 심사분석회의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농협 광주본부의 경우 관내 14개 농협을 통해 고객사은품 및 사회공헌 후원 물품으로 쌀·누룽지, 즉석밥 등 쌀 가공품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작업 대행 활성화로 인력 부족 해소

전남도·농협, 첨단농기계 중심 대전환 등 방안 모색

전남도가 농촌 인력부족과 생산비 상승 등 문제 해결 일환으로 농작업 대행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지난 25일 농협전남본부에서 열어 참석자들과 첨단농기계 중심 대전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농협과 서남부채소농협 등

8개 농협 농기계은행 업무담당자와 농협전남본부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협의 농기계 은행 운영 실태 공유, 전남도의 농작업 기계화 촉진 시책 소개, 우수사례 발표,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업·농촌의 고질적 문제인 고령화, 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 문제는 농작업 대행이 대안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실제 농협중앙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농 대행 시 1ha당 약 585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작업 대행을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작업 일자, 작업 결과, 정산까지 일괄 처리하는 첨단 운영시스템 구축, 자율주행 농기계 등 첨단농기계 보급 확대,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도 중점 논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aT, 브라질 농업연구청과 저탄소 식생활 실천 협약

식량안보 제고 위한 교류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브라질 농업연구청과 식량안보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연구청은 브라질 농수산부 소속 농업연구기관으로, 작물 육종 개발 및 생산 효율성 증가, 환경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목표로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보 공유 ▲Non-GM 대두 종자정보와 실험결과 공유 ▲저탄소 식생활을 위한 ESG 경영실천 협력 ▲식량안보 제고를 위한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aT 관계자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식생활에 적극 동참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